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광현

전화 053-740-4230 / 팩스 0502-193-5504

보도자료  
2024. 7. 1.(월)

### 제목 수백억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및 - 10명 구속 기소, 9명 불구속 기소 -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(부장검사 소창범)는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, 하위 조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- 특히,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, 도박사이트 서버 압수수색, 관련자 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적발하고 별도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까지 추가로 규명하여 위 개발자 등 3명을 직접 구속하였고
-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이던 도박사이트 관련 콜센터 운영자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하여 곧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.
- 나아가,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구속 상태에서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계속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내, ① 공소장변경을 통해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② 8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하였습니다.

- 한편,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형사사건 브로커 총 4명을 적발하여 변호사법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그 중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,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또한,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팀장급 경찰관 1명과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다른 경찰관 1명 등 모두 2명을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깨끗하고 엄정한 형사사법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 I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※ 자세한 내용은 별지 『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』 참조

### ● A○○(불법 도박사이트 ‘자이언트’ 등 운영 총책, 구속)

- '22. 1.~'23. 11. 도박사이트 총책으로서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도금 약 6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, '22. 6.~'23. 4. 다수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 [도박공간개설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
- '23. 7. 도박사이트 운영진들 일부가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○○○에게 경찰관에게 공여할 뇌물 5,000만 원 교부 [제3자뇌물교부]

### ● F○○(불법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, 검찰 직접 구속)

- '22. 1.~'23. 11. 사이트 개발·관리, 게임머니 공급 등 역할을 맡아 A○○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‘자이언트’ 등을 운영하고, I○○ 등과 공모하여 또다른 불법 도박사이트 ‘메가’를 운영 [도박공간개설]
- '22 1.~'23. 11. 수건의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, 관리하고 대가를 받아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업 영위 [사행행위규제법위반]

● **G○○(불법 도박사이트 '자이언트' 등 운영진, 검찰 직접 구속)**

- '22. 10.~'23. 11. A○○ 등과 공모하여 PC 매장 영업 등을 담당하고, 기존 운영진들 및 A○○가 구속된 이후로도 수감 중인 A○○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 [도박공간개설]

● **I○○(불법 도박사이트 '메가' 총책, 검찰 직접 구속)**

- '22. 2.~'23. 11. 사이트 개발자 F○○ 및 수익금 관리책, 콜센터 직원 등 6인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, 10여 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자금 약 180억 원을 수금 [도박공간개설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

● **O○○(형사사건 브로커, 검찰 직접 구속)**

- '22. 1.~'23. 11. A○○와 공모하여 약 6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[도박공간개설]
- '23. 7. A○○로부터 경찰관 S○○, T○○에게 공여할 뇌물 등 5,000만 원을 수수하여 P○○에게 전달 [제3자뇌물취득]
- '23. 7.~8. A○○에게 대포폰, 대포차량을 제공하고 P○○로부터 A○○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을 듣고 A○○를 도주하게 함 [범인도피]
- '23. 8. A○○가 검거된 후 그로부터 경찰·검찰·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본건 도박사이트 관련 형사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수수 [변호사법위반]

● **P○○(형사사건 브로커, 검찰 직접 구속)**

- '23. 7. O○○를 통하여 도박사이트 총책 A○○로부터 경찰관 S○○, T○○에게 공여할 뇌물 및 수고비 등 5,000만 원을 수수 [제3자뇌물취득, 변호사법위반]
- '23. 7.~8. 경찰관 S○○, T○○로부터 A○○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을 듣고 O○○를 통해 A○○에게 알려주어 도주하게 함 [범인도피]

● **S○○(경찰관, 前 □□경찰청 △△수사대 팀장)**

- '23. 7.~8. P○○에게 A○○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'23. 9.~10. 필리핀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한 뒤, '23. 7.~9. 9회에 걸쳐 772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수수 [부정처사후수뢰, 공무상비밀누설, 청탁금지법위반, 제3자뇌물취득]

● T○○(경찰관, 前 □□경찰청 △△수사대 팀원)

- '23. 8. P○○에게 A○○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알려주어 도주하게 한 뒤 '23. 8.~9. 4회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수수 [부정처사후수뢰, 공무상비밀누설, 범인도피]

II **주요 수사경과**

- '23. 7.~8.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A○○ 등 5인의 도박공간개설 사건 구속 송치 및 전원 구속 기소

※ 송치된 범죄사실은 '22. 6.~'23. 4.경 도금 약 607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

- '23. 10.~11. 도박사이트 개발자 F○○ 인지하여 구속 기소
- '23. 12.~'24. 1. 도박사이트 운영진 G○○, 별건 도박사이트 총책 I○○ 등 인지하여 구속 기소

※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직접 보완수사 및 통화내역, 포렌식 분석, 계좌추적 등으로 미입건된 공범들을 적발

- '24. 1.~2. 해외 콜센터 운영자 H○○ 체포영장 발부 및 국제공조수사 요청
- '24. 3. H○○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
- '24. 3. 도박사이트 총책 A○○의 여죄 추가 기소 및 공소장변경

※ A○○가 '23. 8. 구속된 이후로도 '23. 11.까지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만 변경한 뒤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고 도금 약 73억 원을 추가 수금한 사실 확인

- '24. 3.~4. 브로커 O○○, P○○ 인지하여 구속 기소 및 경찰관 S○○, 브로커 Q○○ 인지

※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및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A○○가 브로커들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진행한 사실 확인

- '24. 4. 경찰관 S○○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 기각

※ S○○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,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자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

- '24. 5. 경찰관 T○○, 브로커 R○○ 인지
- '24. 6. 24. 브로커 Q○○, R○○ 불구속 기소, A○○, O○○ 여죄 추가 기소
- '24. 7. 1. 경찰관 S○○, T○○ 불구속 기소



## 수사 결과 및 의의

### 1.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규명

- 경찰에서 송치한 ‘자이언트’ 등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 대하여 계좌 추적, 통신자료 분석, 휴대폰 및 컴퓨터 포렌식, 도박사이트 서버 DB 압수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
  - 경찰에 입건되지 아니하였던 도박사이트 개발자 FOO 및 국내 운영진 GOO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, ‘메가’ 등 별도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까지 추가 적발하여 총책 100 등 6명을 기소하는 등 관련자 총 8명을 추가 적발하여 3명을 구속 기소, 5명을 불구속 기소함
- 또한 총책 AOO가 구속 상태에서도 검거되지 아니하거나 불구속 수사 중인 직원들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사실까지 밝혀 공소장변경을 통해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하고,
  - 8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를 국세청에 고발 의뢰하고, 다수의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수익금 은닉 행위와 경찰관에게 뇌물로 제공할 금품을 브로커에게 공여한 행위 등을 추가 적발하여 기소하는 등 실체를 규명함

### 2.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소재 피의자 검거

- 출석 불응하고 해외 도피 중인 필리핀 콜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, 필리핀 국가수사청 및 이민청 수배자검거팀(FSU)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여 끈질긴 추적 끝에 2024. 3. 20.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함

※ 현재 필리핀에서의 강제추방 및 국내로의 송환 절차가 진행 중임

### 3. 브로커와 경찰 공무원들 간의 부정한 거래를 통한 부패범죄 규명

- 위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형사사건 브로커들이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천 만 원대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형사사건 브로커 총 4명을 적발하여 그 중 2명을 직접 구속 기소,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
- 위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던 팀장급 경찰관 1명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위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과 다른 경찰관 1명이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 위 경찰관 2명을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

## IV

### 향후 계획

- 검찰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,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
- 또한 형사사건 브로커들이 경찰 공무원들과 부정하게 결탁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엄정한 형사사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☑

별지

[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]

※ '처분' 중 굵게 표시한 부분이 검찰 인지

순번	피고인	지위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○○ (50세)	'자이언트' 등 도박사이트 총책	- '22. 1.~'23. 11. 총책으로서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도금 약 6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<b>[도박공간개설]</b> - '22. 6.~'23. 4. 여러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약 600억 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 <b>[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</b> - '23. 7. 15. 도박사이트 운영진들 일부가 체포되자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브로커 P를 통해 경찰관 S, T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O에게 5,000만 원 교부 <b>[제3자뇌물교부]</b>	구속 기소 (23. 8. 31.)  <b>추가 기소 및 공소장변경</b> (24. 3. 25.)  <b>추가 기소</b> (24. 6. 24.)
2	B○○ C○○ D○○ E○○	'자이언트' 등 도박사이트 운영진 등	- '22. 6.~'23. 4. A 등과 공모하여 수익금 관리, 직원 급여 지급, PC 매장 영업 등 역할을 맡아 도금 약 600억 원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<b>[도박공간개설]</b>	구속 기소 (23. 8. 4.)
3	F○○ (40세)	'자이언트' 및 '메가' 등 도박사이트 개발자	- '22. 1.~'23. 11. A 등과 공모하여 사이트 개발·관리, 게임머니 공급 등 역할을 맡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<b>[도박공간개설]</b> - '22. 1.~'23. 11. 여러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, 관리하고 대가를 받아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업 영위 <b>[사행행위규제법위반]</b> - '22. 2.~'23. 11. I 등과 공모하여 도금 약 180억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<b>[도박공간개설]</b>	<b>구속 기소</b> (23. 11. 20.)  <b>추가 기소</b> (24. 1. 4.)
4	G○○ (45세)	'자이언트' 등 도박사이트 운영진	- '22. 10.~'23. 11. A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PC 매장 영업을 담당하고, 기존 운영진들 및 총책 A가 구속된 이후로도 수감 중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운영을 총괄 <b>[도박공간개설]</b>	<b>구속 기소</b> (23. 12. 28.)
5	H○○ (44세)	'자이언트' 등 도박사이트 해외 콜센터 운영자	- '22. 6.~'23. 11. A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콜센터 운영자로서 도금 총·환전, 수익금 이체,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역할을 맡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<b>[도박공간개설]</b> - '22. 6.~'23. 4. 여러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약 600억 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가장 <b>[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</b>	수사 중  필리핀 검거 (24. 3. 20.)
6	I○○ (44세)	'메가' 도박사이트 총책	- '22. 2.~'23. 11. 사이트 개발자 F 및 수익금 관리책, 콜센터 직원 등 6인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13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약 180억 원을 입금받음 <b>[도박공간개설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</b>	<b>구속 기소</b> (24. 1. 4.)
7	J○○ K○○ L○○ M○○ N○○	'메가' 도박사이트 하부 직원	- '22. 2.~'23. 11. I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약 180억 원을 입금받음 <b>[도박공간개설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</b>	<b>불구속 기소</b> (24. 1. 4.)



순번	피고인	지위	공소사실 요약	처분
8	○○○ (61세)	형사사건 브로커 겸 '자이언트' 등 도박사이트 운영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2. 1.~'23. 11. 콜센터 사무실 마련, PC 매장 영업·관리 등 역할을 맡아 도금 약 6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<b>[도박공간개설]</b></li> <li>- '23. 7. 15. Q와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총책 A가 경찰관 S, T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5,000만 원을 수수하여 P○○에게 전달 <b>[제3자뇌물취득]</b></li> <li>- '23. 7.~8. A에게 대포폰, 대포차를 제공하고 P로부터 A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을 듣고 A에게 알려주어 도망가게 함 <b>[범인도피]</b></li> <li>- '23. 8. 15. 검거된 A로부터 도박사이트 사건 관련 경찰, 검찰,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수수 <b>[변호사법위반]</b></li> </ul>	<p><b>구속 기소</b> (24. 3. 22.)</p> <p><b>추가 기소</b> (24. 6. 24.)</p>
9	P○○ (53세)	형사사건 브로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. 7. 15. O로부터 도박사이트 총책 A가 경찰관 S, T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3,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경찰관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고비 2,000만 원 수수 <b>[제3자뇌물취득, 변호사법위반]</b></li> <li>- '23. 7.~8. 경찰관 S, T로부터 총책 A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을 듣고 O를 통해 A에게 알려주어 도망가게 함 <b>[범인도피]</b></li> </ul>	<p><b>구속 기소</b> (24. 4. 5.)</p>
10	Q○○ (53세)	형사사건 브로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. 7. 15. O와 공모하여 A가 경찰관 S, T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5,000만 원을 수수하여 P○○에게 전달 <b>[제3자뇌물취득]</b></li> <li>- '23. 7. 19. A, O에게 P를 소개하고 P로 하여금 금품을 받고 사건 상담,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등을 하게 한 뒤 500만 원을 받아,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 등 알선 <b>[변호사법위반]</b></li> </ul>	<p><b>불구속 기소</b> (24. 6. 24.)</p>
11	R○○ (53세)	형사사건 브로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. 8.~10.경 위 도박사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O로부터 합계 1,250만 원 편취 <b>[사기, 변호사법위반]</b></li> </ul>	<p><b>불구속 기소</b> (24. 6. 24.)</p>
12	S○○ (55세)	前 □□경찰청 △△수사대 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. 7.~8. 브로커 P에게 도박사이트 총책 A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'23. 9.~10. 위 사이트의 필리핀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하며, '23. 7.~9. 9회에 걸쳐 합계 772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 <b>[부정처사후수리, 공무상비밀누설, 청탁금지법위반, 제3자뇌물취득]</b></li> </ul>	<p><b>불구속 기소</b> (24. 7. 1.)</p>
13	T○○ (44세)	前 □□경찰청 △△수사대 경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. 8. 브로커 P에게 총책 A에 대한 체포 집행 계획을 누설하여 A를 도망가게 한 뒤 '23. 8.~9. 4회에 걸쳐 합계 1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 <b>[부정처사후수리, 공무상비밀누설, 범인도피]</b></li> </ul>	<p><b>불구속 기소</b> (24. 7. 1.)</p>